2024. 5. 13.(월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4년 5월 1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

서울도서관장오지은02-2133-0200도서관정책과장김지혜02-2133-0220관련 누리집
(메뉴)https://seouloutdoorlibrary.kr/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■ 쪽수: 4쪽

서울이외도서관 17일부터 '이간도서관'으로… "때이른 무더위에 독서로 날린다"

- 5.17.~9.29. '서울야외밤도서관' 전환. 올해부터는 7~8월에도 휴장없이 운영
- 서울·광회문광장(16시~21시)·청계천(12시~20시), 공연·영화상영 등 특별프로그램도 선보여
- 개인독서등 500여개 대여. 빛 밝힌 서가 조명소품 등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
- □ 지난달 18일(목) 개장해 하루 평균 1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대표 문화콘텐츠 '서울야외도서관'이 때이른 무더위로 일정을 조금 앞당겨 운영 시간대를 야간으로 바꿨다.
- □ 서울시는 오는 17일(금)부터 9월 29일(일)까지 '책읽는 서울광장', '광화문 책마당'은 16시~21시로, 청계천 '책읽는 맑은냇가'는 12 시~20시로 운영시간을 변경해 시민들을 만난다고 밝혔다.
 - 당초 6월부터 밤 야외도서관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이른 더위로 2주 앞당겨 운영시간을 변경해, 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서 울야외도서관을 즐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.

□ 특히 올해부터는 7~8월에도 휴장 없이 야간시간대에 '서울야외밤도 서관'을 운영해 시민들이 독서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더 넓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<개인독서등 500여개 대여, 빛 밝힌 서가 조명소품 등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>

- □ 야간 운영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. '서울야외밤도서관' 책이 진열된 책꽂이는 은은한 조명을 활용한 '빛의 서가'로 운영되고, 주변 또한 다양한 조명 소품으로 어둠을 밝힌다. 또 독서랜턴과 독서등(북라이트)을 거점별로 500여 개 비치해 야외도서관을 찾은 시민 등에게 개별적으로 대여해준다. 쾌적한 밤공기 아래 서가의 빛, 조명 소품의 빛과 독서등으로 광장 곳곳이 독서하기 좋은 분위기로 변신할 계획.
- □ 아울러 '서울야외밤도서관'에서는 매주, 밤의 정취와 어울리는 영화, 공연 등 다채로운 야간특별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인다. 특히 금요일에 는 '서울 문화의 밤' 행사와 연계해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 고, 시민들의 건전한 야간문화 활동을 북돋운다.
- □ 먼저 야간 개장 시작인 5월 셋째 주(5.17.(금)~5.19.(일))에는 봄밤과 어울리는 공연을 준비했다. '책읽는 서울광장'에서는 17일(금) 19시, '달고 달디단, 밤도서관'이라는 제목으로 밴드〈커먼 그라운드〉의 공연이 선보인다. 19일(일) 18시에는 '추억이 가득 담긴 세상으로 떠나는 하모니'를 주제로 아카펠라그룹〈제니스〉가 무대에 오른다. 각 무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광장을 찾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.

- 〈커먼그라운드Common Ground〉는 펑키 그루브 진수를 보여주는 밴드로 선선한 밤바람과 함께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에게 낭만적인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.
-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〈제니스〉는 장르를 불문하고 완벽한 하모니를 선보이는 그룹이다. 우리에게 친근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OST를 포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.
- □ '광화문 책마당'에서는 9월까지 북악산을 배경으로 빈백에 앉아 여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'도심 속 휴양지, 달빛 낭만 극장'을 운영한다. 매월 1회, 일상 속에서 낭만과 마음에 '쉼표'를 찍어주는 편안하고 잔잔한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. 영화 상영 외에도 '그깟 낭만, 밤도서관에서'이라는 제목의 다채로운 공연도 주 1회 운영한다.
 - '달빛 낭만 극장'의 상영작은 추후 서울야외도서관 누리집과 광화문 책마 당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추후 공지된다.
- □ 서울야외밤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서울야외도서관 누리집(seouloutdoorlibrary.kr)과 인스타그램 (@seouloutdoorlibrary.s, @seouloutdoorlibrary.g, @seouloutdoorlibrary_c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□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"서울야외밤도서관은 때 이른 더위로 지친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쉼터가 될 것이다"라며 "앞으로도 서울야외밤도서관을 비롯, 시민들이 야간에도 즐길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전한 야간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붙임 1 2024 서울야외밤도서관 포스터

